

# 유튜브에 빠진 보험사 ‘쉽고 재밌는’ 콘텐츠戰

DB손보, 유튜브 구독자 34.5만명  
보험업계 최초 ‘실버버튼’ 획득

삼성화재, 보험챗 3개 시리즈 통해

사회초년생 의무車보험 상식 알려

KB손보, 펫보험 시리즈 7회 공개



유튜브가 보험사들의 주요 소통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보험을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는 포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유튜브 마케팅 전략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 중이다. 지난 2월 기준 DB손해보험 유튜브 채널 ‘프로미TV-DB손해보험’의 구독자는 34만5000명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이미 구독자 30만명을 달성해 보험업계 최초로 ‘실버버튼’을 획득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은 주요 콘텐츠를 1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벤트 및 신상품 소개, DB손해보험의 주요 소식을 정리한 ‘DB손해보험 NOW’ 등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특히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영상은 공개한 지 3주 만에 조회수 114만회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계 유튜브보다 DB손해보험은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관련 이벤트 영상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부터 유튜브 시리즈 ‘보험챗’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손해보험업계 당기순이익 1위인 삼성화재이지만 2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는 2만8800명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험챗은 삼성화재의 본업인 보험을 쉽고 간단한 ‘담소(chat)’를 통해 설명한다는 의미다. 사회초년생 역할을 하는 진행자의 생생한 질문에 직원이 답하고 시청자들이 실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쉬운 언어로 재해석해 전달한다. 보험챗의 첫 주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다. 삼성화재는 현재 ‘보험챗 EP.3’까지 공개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이달 첫째 주 전국 10곳서 7146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견본주택 ‘더샵둔촌포레’ 등 2곳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7146가구(일반분양 560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밸리스울림픽공원’, 인천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

샵둔촌포레’, 대전 동구 성남동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 2곳이 오픈 예정이다.

에스테크건설·이엔건설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에스아이밸리스울림픽공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 전용면적 52㎡, 58가구 규모다. 단지는 후분양아파트로 분양대금 완납 후 3월 중 입주가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대전시 동구 성남동 일원에서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9개동, 총 1213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77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김대환 기자 kdh@

## “사회공헌 등 지역주민과 소통이 성공 비결”

### 인터뷰 새마을금고를 가다

#### 손인창 중곡1동 이사장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을 겪으면서다. 중앙회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포부도 남다르다. ‘우리동네 금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주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찾아간다.〈편집자주〉

손인창 서울 광진구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쇄신 또한 상생에 있다는 판단이다.

#### ◆ 중곡1동 새마을금고

중곡1동 새마을금고의 총조합원 수는 1만2000명.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3.8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진행한 경영종합경영지표 평가는 2등급을 받았다. 총자산은 약 2300억원으로 금융자산과 공제가 각각 1593억원, 700억원이다. 올해 배당금은 5%로 책정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중간정도 규모의 금고다.

지난해 중곡1동 새마을금고는 ‘상복’ 많은 해였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설립 46년만에 처음이다. 표창을 받은 배경은 손 이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20~2021년도 성적표가 좋아서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광진구에서 종합지표 1등을 차지했다.

그간 중곡1동 새마을금고는 예대율 40% 안팎인 소형 금고였다. 예대



손인창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난해 축제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준 우산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산 기자

#### 2년 연속 광진구 종합지표 1등 작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표창

#### 부동산 비중 축소, 사업실적 집중 사회환원 등 통해 주민소통 강화

율이란 금융사가 가진 예금잔액 대비 대출한 자금의 비율이다. 예대율이 높을수록 연체 위험이 증가하지만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손 이사장은 취임 후 예대율을 80%까지 높이며 영업 확장에 집중했다.

손 이사장은 “3년 전 취임 후 실적 높이기에 몰두했다.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사업실적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며 “지난해 어려운 시기에 적자를 본 금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곡1동 새마을금고는 수익을 내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 ◆ 지역 사회와 소통이 ‘성공 비결’

손 이사장은 단순 홍보만을 통해 영업력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 지난 2020년 취임 후에는 코로나19가 확산했다. 중곡1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역기와 차량을 기부했다. 사회 환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취임 4년차를 맞이하면서 ▲ 김장행사 ▲ 반찬나눔행사 ▲ 취약계층지원 ▲ 종도리운동 ▲ 장학금지급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인근 ‘중곡제일 시장’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는 우산과 앞치마를 구매해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장학사업은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그간 관내 학교장, 동사무소 등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중곡 1동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려고 한다.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실질사업대출, 소상공인의 생활필요자금 대출 등이다.

손 이사장은 “서울이 대도시라지만 동단위로는 소문이 빠르다. 항상 조합원들이 금고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로만 하는 쇄신은 안 된다. 주변에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회공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앞줄 오른쪽)과 레티하타잉(Le Thi Ha Thanh) VNI손해보험 이사회 의장 및 관계자들이 해외 주주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 DB손보, 베트남 손보사 최대주주 됐다

VNI·BSH 2개 손보사 인수계약  
베트남·인도차이나반도 발판 마련

DB손해보험이 베트남 손보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DB손해보험이 베트남 손보사인 VNI(Vietnam National Aviation Insurance), BSH(Saigon-Hanoi Insurance) 손해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과 6월, 베트남 손해보험사장 점유율 10와 9위인 VNI와 BSH 손해보험사 인수 계약 체결을 진행

한 바 있다. 올해 초 최종 계약을 마무리해 베트남 내 2개 손해보험사를 추가로 인수했다.

이번 인수 계약체결을 통해 DB손해보험은 베트남 보험시장 내 사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또한 글로벌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VNI와 BSH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의 광범위한 보험사업 경험과 전문성, 앞선 기술 인프리를 활용해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반도 지역에서 상위사로의 발돋움을 계획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 하나은행

## 수출증기 우대금융 5000억 규모 실시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약 50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 보증·보험료 100% 지원 ▲ 대출금리 감면 ▲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수출시 겪게 되는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수입통관실적 보유 기업은 수입보험료 발급을 통한 수입결제 금융지원 및 보험료 100%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중견기업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